



PED를 극복하고 여름철 혹서기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여/양/농/장

충남 청양에 위치하고 있는 여양농장은 최명복 사장이 11년째 부인인 정순임씨와 함께 경영하고 있다. 지역의 대소사를 돌보는 일에서부터 농장의 일까지 매일 분주한 스케줄의 최명복 사장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명복 사장이 몸소 겪고 체험한 만성소모성질환(4P) 극복 과정과 여름철 양돈장 관리의 다른 양돈장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했다. 이번 호에는 여양농장의 성공적인 농장 관리법을 공개하고자 한다.

취재 - 배승한

만성소모성질환 극복 이야기

PED는 4P중 하나로 우리 양돈장에 PMWS, PRRS, PRDC와 더불어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많은 양돈농가들의 가슴을 태우는 원인 중 한

가지이다. 충남 청양의 여양농장은 2004년도 봄부터 PRRS와 PMWS의 피해를 입는데다 설상가상으로 2005년 초부터 10월까지 PED로 인해 폐사율이 40%~60%에 달했다. 최명복 사장은 PED와 소모성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컨설턴트의 도움

을 받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금년 초부터는 농장 전체의 비육돈군 폐사율이 포유기에 5% 이내, 이유후에 2% 미만으로 현저히 낮아져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구가하고 있다.

■ 백신의 변화

PRRS 생독 백신의 모든 일괄 접종을 2005년도 봄부터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한 후 현재까지 매 3개월 단위로 1회 일괄 접종을 시행 중이며, 2주령의 자돈에게도 한 번씩 접종하고 있으며 도입 후보돈에게도 철저히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또한 PED와 PMWS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모돈에 대하여 파보바이러스 백신의 접종도 분만 3주전과 분만 후 2주령에 2회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PED백신을 사독 백신으로 교체하여 임신 말기에 2회 접종을 해왔으나 금년도 하절기(7~8월)에는 모돈의 식불증을 고려하여 PED 백신을 일시 생략하고 뱃취별 수세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작년 9월 이후 포유기자돈에 MHHPs(마이크오피라스마+글레서씨)백신을 1,3주령에 2회 접종을 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 모든 사양관리의 변화

과거와는 달리 모돈의 바디컨디션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최사장의 부인인 정순임씨가 매주 사료량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하고 있다. 특히 산전산후의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신돈 사료의



▲ 기본에 충실한 관리를 통해 튼튼한 자돈을 생산하고 있다. 자돈들의 규격이 균일한 것은 최명복 사장의 빈틈없는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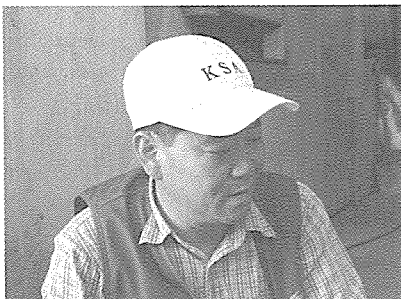


▲ PED가 발생한 이후 작년 가을부터 자돈에게 분만후 5~7일간, 이유 후 5~7일간 요구르트를 직접 제조하여 복당 1리터씩 하루에 2회로 나누어 급여하고 있다.

비중체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자돈의 관리

PED가 발생한 이후 작년 가을부터 자돈에게 분만후 5~7일간, 이유 후 5~7일간 요구르트를 직접



● 최명복 사장(좌)과 부인 정순임(우)씨는 농장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제조하여 복당 1리터씩 하루에 2회로 나누어 급여하고 있다. 이후부터 각종 세균성 설사가 현저히 줄고 초기사료의 입질이 원활해져 만성 PED로부터 대부분의 자돈을 구해낼 수 있었다. 또한 이유 후 설사문제도 해소되고 사료섭취량 증가에 의하여 성장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편 이유자돈방 2방을 1개로 터서 사육공간을 넓혀주고 하절기를 제외한 계절에는 한기 방지를 위하여 합판을 이용하여 조치한 결과 위축돈 발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양농장의 여름나기

사람들도 심한 더위를 느끼고 쉽게 지치는 혹서기를 과연 양돈장의 돼지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특히나 돼지는 두꺼운 지방층이 있고 땀샘이 없어 쉽게 더위에 지치게 마련이다. 여름철만 되면 돼지들의 수태율이 떨어지고, 분만율 역시 이상이 생긴다. 여양농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혹서기를 탈출하고 있었다.

■ 시원한 얼음으로 모돈의 스트레스 최소화

폭폭지는 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명복 사장은 7월 초순부터 8월 말까지 임신말기의 모돈에게 얼음을 공급하고 있었다. 농장에 제빙기(일 200kg 용량)를 번식사에 설치하여 출산을 일주일 정도 앞둔 모돈과 포유모돈에게 일일 평균 2~3회



◀ 농장에 제빙기를 설치하여 모돈과 포유모돈에게 일일 평균 2~3회 정도 얼음을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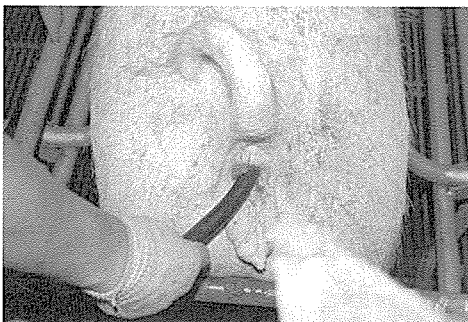
정도 얼음을 공급하고 있다. 최명복 사장은 매 여름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양돈장의 모돈들이 얼마나 힘들면 수태율이 저하되고 분만율에 이상이 생기겠냐면서 최대한 모돈의 생활이 쾌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말도 못하는 돼지들을 사람의 편의대로 관리해서는 안된다. 모돈의 경우 임신기간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여러 돼지들이 같이 있어 실제 사람이 느끼는 양돈장 온도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고 최명복 사장은 말한다.

■ 관장과 물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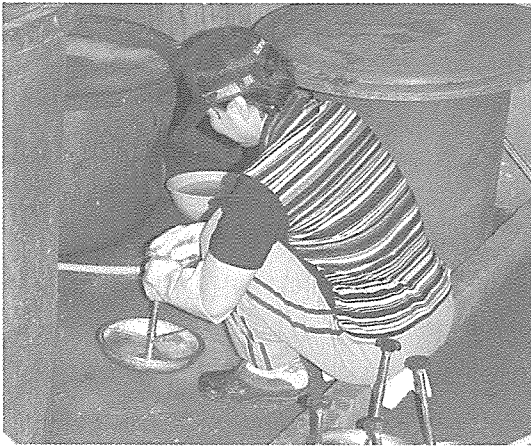
혹서기 모돈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최명복 사장은 각얼음을 공급하는 기간의 임신 모돈에게 관장을 시키는 한편 시원한 물을 뿌려주고 있었다.

관장방법은 호수로 돼지의 항문에 시원한 물을 넣어주고 있었다. 물로 인해 태아에 문제가 발생



◀◀ 모돈의 자궁을 시원하게 해주어 모돈이 혹서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모돈들에게 시원한 물을 머리, 목, 다리 주변에 충분히 뿌려주어 모돈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 하절기에는 사료가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사료통을 바로 바로 물로 청소해야 한다.

하는건 아닌지 (주)맥스매직의 김형린 대표에게 물어보았다. 김대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돈의 자궁을 시원하게 해주어 모돈이 혹서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모돈이 과온증에 시달려 혁혁한다고 바로 해열제 주사를 하면 오히려 쇼크를 받거나 유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찬물로 항문관장을 하고 열을 다소 내려준 후에 해열제를 주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방법을 권장했다.

또한, 모돈들에게 시원한 물을 머리, 목, 다리 주변에 충분히 뿌려주어 모돈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다소 사람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것 같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모돈을 안정화 시킨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 질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투약

최명복 사장은 돼지는 두꺼운 지방층으로 덮여 있어 열 발산을 방해하므로 폐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상돈에게도 더운 날에는 과온증이 발생되어 열사병 증상이 쉽게 발현되는 요인이 되는데 특히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단열부족 및 밀사 등 사육조건이 나빠지면 열사병으로 폐사될 수도 있

다고 강조한다. 대체로 외기 온도 32도 이상, 습도 70% 이상일 때부터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35도 이상이 되면 습도가 60%수준이라도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 최명복 사장은 이러한 기후 조건하에서는 돼지의 백신 접종이나 이동 및 수송(출하) 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특히 호흡기 질병과 살모넬라증 방지를 위하여 자돈사에서 전출이 되는 10주령까지는 이에 적합한 항생제와 유기산제를 철저히 투입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또한 열사병으로 인한 폐사돈의 부검소견은 특별한 병변은 없으나 폐장의 충출혈이 특징이므로 하절기에 접어들기 이전인 6월에 전돈군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크리닝과 구충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절기 일반관리 준칙

- 돼지이동 · 합사는 새벽이나 오후 늦게한다.
- 열사병은 진행 속도가 빠르므로 신속한 처치와 치료를 한다. - 사료섭취량은 문제 발생의 제 1 징후이므로 철저히 사료섭취량과 음수량을 점검한다. - 사료위생과 음수위생에 주의를 기울인다. - 종업원과의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농장내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정확하게 문제해결을 한다.

농장을 떠나면서

여양 농장을 떠나면서 모돈의 안정화가 농장의 생산성과 강건성을 지키는 길임을 알 수 있었다. 여유를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관리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결과가 올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단기간의 결과보다 농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여기에 필요한 것은 경영주와 관리자의 인내와 노력임을 여양농장을 떠나면서 생각했다. **양돈**